

## 국보관

### 건칠십대제자입상

#### 국보

나라 시대(710~794년)에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불상들은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서도 특히 널리 알려진 10명의 초상 중 일부입니다.

10구의 상은 733년부터 734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734년 봉납 때 서금당(西金堂)에 안치되었습니다. 서금당은 네 차례의 화재를 겪었지만(1717년의 마지막 화재 이후 재건되지 않음), 다행히 모두 소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상의 재료에 있는데, 탈활건칠조라는 기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에서는 먼저 점토로 된 원형 틀 위에 옷칠이 배어든 천을 겹겹이 포개어 붙인 후, 옷칠이 굳으면 원형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속이 빈 내부를 가벼운 나무틀로 보강하고 옷칠과 톱밥으로 만든 풀로 이목구비와 세부적인 장식을 마무리한 뒤, 도장을 하고 금박을 입힙니다. 이렇게 완성된 상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서(현존하는 상의 무게가 각각 10~15kg)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재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을 보여줍니다. 연령도 제각각인데,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의복에 주름과 접힌 자국이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역사상의 인물이라기 보다는 명상이나 논의, 설교 등에 탁월한 존재로서 부처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고후쿠지 절에 남아 있는 6구의 상은 현재 목건련, 사리불, 수보리, 가전연, 부루나, 나후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얼마나 본래의 인물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후라로 여겨지는 상은 눈을 감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맹인 승려인 아나올을 묘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수보리의 생기발랄한 모습은 석가모니의 제자인 아난을 묘사하는 표준적인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1 구의 심목은 현재 도쿄예술대학에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1 점은 도쿄에 있는 오후라집고관에 소장되어 있었지만 1923 년의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 2 구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